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2. 27.(금) 06:00 < 12.27.(금) 석간 > 배포 2024. 12. 26.(목)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 점검

- 미·중 양대시장 특이동향 없어…12월에도 수출 플러스·무역수지 흑자 기대
- 통상교섭본부장, 제12차 수출지역담당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27.(금)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2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 점검을 하였다.

'24년 1~11월에는 9대 주요 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하였다.

* 9대 주요 지역(수출액 순서) : (증가)중국, 미국, 아세안, 일본, 중남미, 중동, 인도, (감소)EU, CIS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425억불, +30%)를 포함한 IT 품목(556억불, +24%)과 석유화학(161억불, +4%)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6.4% 증가한 1,212억불을 기록하였다. 대미국 수출도 자동차(320억불, +11%), 일반기계(139억불, +7%), 반도체(92억불, +136%)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1.0%(1,159억불) 증가하였다.

대아세안 수출(1,044억불, +4.7%)은 반도체(256억불, +28%) 등 IT 품목(400억불, +15%)과 석유제품(145억불, +2%)·석유화학(61억불, +19%)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며, 그 외 중남미(267억불, +18%), 중동(179억불. +5%), 인도(170억불, +4%) 등 신흥시장과 일본(270억불, +2%)으로의 수출도 증가하였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국내 엄중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 요인은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들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며, "12월에도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9개월 연속 흑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책임자	과 장	이창훈 (044-203-4040)
		담당자	사무관	여수항 (044-203-404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